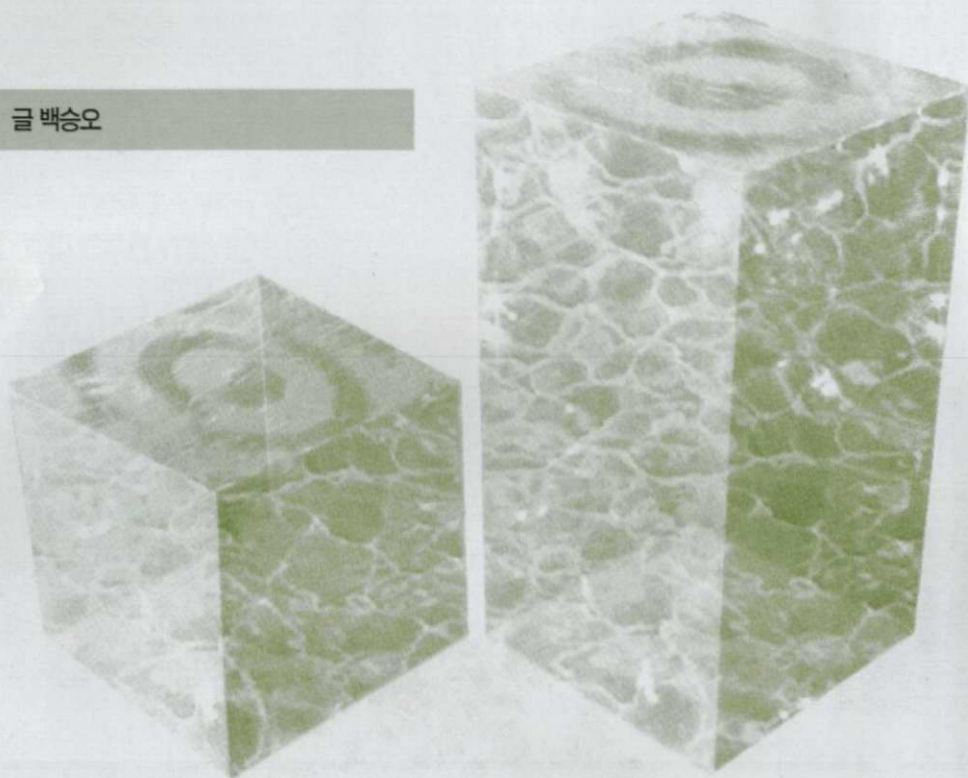


위기관에 휘말린 '닷컴'을 위한 변명

동어반복적인 위기관 보도양상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
위기관에 이어 대안 제시도 따라야

글 백승오



최

근 들어 각종 언론들을 통해 닷컴위기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와 맞추어 모든 언론의 보도양상도 위기관을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무감까지 생기는 모양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의 언론매체의 보도양상을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전문가의 입을 빌리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다음으로 업계에서 떠도는 소문을 짜맞추어 하나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물론 양자 모두 픽션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일부 언론의 태도인데 이

미 보도된 기사에 덧붙여 '닷컴위기관'이라는 동어반복을 한다는 것이다. 즉, 동어반복 이외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다는 것. 때문에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위기관만 있고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위기관은 실체 없이 부풀어만 간다는 것이다.

'닷컴'에 대한 개념 정립 필요

흔히들 닷컴=벤처라는 등식을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닷컴과 벤처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닷컴

들은 크게 인터넷 기업과 인터넷 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터넷기업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콘텐츠가 상품인 기업을 말하는 것이고, 인터넷기업이 아닌 벤처라함은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국내 벤처의 대명사인 메디슨의 경우 인터넷 기업은 아닌 것이다. 쇼핑몰의 경우 대표적인 인터넷기업이다. 때문에 닷컴 즉 벤처도 인터넷기업과 비인터넷기업으로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까닭은 대부분의 닷컴 위기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수익모델의 부재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모델의 부재는 인터넷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기업이 아닌 벤처들의 경우 제조업에 속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 벤처위기나 닷컴위기에 있어 어느 정도 정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잘 나가는' 회사마저 위기론에 휘말려 투자자금 단절과 판매부진이라는 이중고를 덜어 줄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정보통신과 관련이 없는 벤처기업마저 벤처라는 공통분모 때문에 위기론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지표가 바탕이 된 보도 필요

우선 언론에서 위기라고 할 때에는 정확한 지표가 필요한데 위기론에는 위기라고 할만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확한 통계에 의한 분석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위기론의 경우 닷컴기업들의 수익부재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수익부재 즉, 투자자금만 있고 매출이 없는 경우인데 물론 인터넷 기업의 대부분이 현재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

러 통계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통계자료는 아직 없다는 사실. 즉 인터넷 기업들은 자사의 정확한 매출과 투자금을 잘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따라서 지금까지 통계에 의해 분석된 것들은 일부 기업에 국한되었음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의 자금을 가지고 5명이 함께 창업을 해서 매월 1천만원의 수익 밖에 올리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면 통계자료에는 수익 1천만원 이하라고 해서 매출이 적은 기업으로 분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한 명이 한달에 2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초기 투자금이 거의 없는 인터넷 기업이고 보면 아주 적은 수입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라도 위로를 하면 굳이 위기론을 심각하게 부르짖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변명같이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억지는 아니다. 억지는 벤처라는 허상을 좇아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들이 억지인 것이다. 또한 그 허상을 더욱 부추긴 언론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병주고 약 주고, 복치고 장구치는' 언론의 호들갑에 이전 의견할 때도 되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 위기는 위기라는 것도 명심하자.

IMF이후 취업난 해소 및 경제난 타개의 일등공신

IMF라는 미증유의 경제난을 타개한 것은 정부의 뛰어난 정책 때문도, 재벌기업의 부수적 사업 행태의 변화도 아니다. 난국 타개를 위해 그야말로 모험의 길을 나선 벤처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십만의 실업자와 취업문제들을 일시적으로나마 해소 해주어 사회 경제적 불안의 요인을 줄여준 벤처기업이야말로 경제력 회복의 일등공신이 아니던가.

앞서 지적했듯이 일확천금의 꿈을 꾸지

않는 기업(물론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기본이며 추구해야 할 당위성이 있지만, 위기론에 대한 변명으로서)이라면 꾸준한 수입으로라도 위기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 나가게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책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시장진입에 실패했고 수익성이 없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까지 변명을 하지는 않겠다는 것. 모든 벤처기업에 대해 일시에 '도매금'으로 위기설로 몰아 넣어 불안을 가중시키지는 말자는 것. 투자자들도 소신을 가지고 '떡잎'이 튼튼한 기업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이젠 대안을 제시하자

사실 '닷컴위기설'의 진원지는 미국이다. 벤처기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면서 나스닥시장이 침체를 맞았고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으로서 이중고를 안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우리나라의 증시 국면을 볼 때 벤처위기설은 그리 성급한 것도 아니다. 시의적절하게 터져 나온 경고음인 것이다. 물론 초기시장에서 주가를 부풀려 '치고빠진' 가짜 벤처인은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마도 아직까지 그런 꿈을 가진 벤처인들이 있다면 굳이 변명까지 늘어놓으며 옹호할 생각은 없다.

동어반복적인 위기설만 계속되고 있다. 한사람씩 내뱉어낸 벤처위기, 닷컴위기설이 다시 경제를 어둡게 하고 있다. 거기엔 대안이 없었다. 이젠 대안이 필요한 시기다. IMF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벤처라는 간판만 달면 돈을 퍼다주는 그런 정책이 아닌,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될 성싶은 떡잎'에 다시 한번 물을 붓고 거름을 주자. 이젠 위기론의 동어반복은 그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